

A case of focal nodular hyperplasia was growing up during pregnancy

Departments of Internal Medicine<sup>1</sup>, Diagnostic Radiology<sup>2</sup> and Pathology<sup>3</sup>, Dong-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Busan, Korea

\*Min Ji Kim<sup>1</sup>, Sang Yeong Han<sup>1</sup>, Sung Wook Lee<sup>1</sup>, Dong Seong Jeong<sup>1</sup>, You Jung Sohn<sup>1</sup>, Jin Han Cho<sup>2</sup>, Jin Sook Jeong<sup>3</sup>

Focal nodular hyperplasia(FNH) is the second most common benign solid tumor of the liver and usually found in young females. Most of FNH patients are asymptomatic and found incidentally. In FNH, spontaneous bleeding or rupture rarely occurs and malignant transformation is unlikely. The etiology of the FNH is unclear, but because of female predominance and young age at onset, it seems to have a role female hormone for development of FNH. Although the development and the complications of hepatocellular adenomas have been related to the use of oral contraceptives and pregnancy, the influence of oral contraceptives and pregnancy on the growth and complications of FNH is controversial. Most of FNH are stable in size and rarely complicated during pregnancy. Therefore conservative management is the usual option. Surgical intervention is considered for severely symptomatic patients or for those with enlarging FNH have risk of rupture. We describe here a case of focal nodular hyperplasia growing during pregnancy in a 27-year-old female. Her course of pregnancy and delivery was uneventful. Two months after delivery, the size of FNH was decreased.

간경변에서 발생하는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의 임상양상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임성륜 · 양대열 · 정경면 · 정혜경 · 이완식 · 박창환 · 김현수 · 최성규 · 유종선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Spontaneous bacterial peritonitis, 이하 SBP)은 간경변증의 중요한 합병증으로 복수가 동반된 간경변증 환자의 10~20% 에서 발생하며 최근 들어 조기 진단 및 적절한 항생제의 투여로 치료율은 현저히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간경변증 환자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이다. 저자 등은 최근 6년동안의 SBP의 임상 양상 및 예후와 관련된 인자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0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전남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SBP로 진단된 130예(113명)을 대상으로 임상 증상, 혈액 및 복수 검사 및 배양 검사를 파악 후 호전군과 사망군을 비교 하였다. 전체 130예의 평균연령은 55세, 남녀비는 3.3:1였으며, Child-Pugh 분류 C등급이 76.9%(100예)로 가장 많았다. 지역사회 감염이 78.5%(102예), 원내 감염이 21.8%(28예)였다. 임상 증상은 복통이 72.3%(94예), 발열이 53.8%(70예)로 많았다. 복수나 혈액에서 세균 배양 양성률은 23%(30예)였으며, 배양된 세균은 E. coli가 가장 많았다. 치료 후 호전된 군이 76.2%(99예), 치료시 사망 및 치료 불능 상태로 퇴원한 경우가 23.8%(31예)였다. 사망원인은 신부전이 41.9%(13예), 간 기능 부전이 29.0%(9예)로 많았다. 사망군에서 입원 48시간 후에 발생한 원내 감염, 혈액 검사에서 백혈구, 다형핵 백혈구, 혈소판, 총 빌리루빈 및 BUN, 크레아티닌이 높은 경우, 복수 검사에서 총 단백이 높은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상기의 임상 소견이 보이는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환자에 대해 신중한 치료 및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